

청소년이 읽을 만한 책

出協 선정 '이 달의 청소년도서' 9종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권병일)가 선정하는 '이달의 청소년도서' 91년 4, 5월분으로 다음 9종의 도서가 뽑혔다.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이사장 정진숙)는 총 8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정도서 1종당 3백부씩 모두 2천7백부를 구입, 전국 각지방의 공공도서관 81곳을 비롯, 청소년 선도기관·소년원·문화원 등 3백곳에 배포했다. '이달의 청소년도서' 선정위원은 다음과 같다.

△문학예술=남미영(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신상철(이동문학가) △과학기술=현원복(과학기술연구단지 대변인) △종교철학=이은봉(덕성여대 교수) △역사=하현강(연세대 교수) △인문사회=송복(연세대 교수)

중국 5천년의 지혜

오애영 편역



노장사상과 공자의 명분론, 그리고 노자의 실질적 사고가 근간을 이루는 중국인들의 '중유지향' 적 사고방식 등 유구한 역사속에서 배양된 중국인들의

독특한 지혜가 소개된 책.

'인생을 넉넉하게 사는 지혜' '인생의 수라장을 극복하는 지혜' '매일을 무사히 넘기는 지혜' '역경을 헤치고 살아가는 지혜'로 나누어 묶은 이 책에는, 수많은 고전과 나타난 중국인들의 다양한 처세술과 인생관 세계관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77편의 짧은 글로 대륙기질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학원사 / B6신 / 226면 / 1500원

영광의 꿈, 도전의 지혜

박익수 지음



우리의 젊은 과학자들이 노벨과학상을 수상했으면 한다는 바람에서, 한국과학사회연구소 소장인 저자가 노벨상의 이모저모를 구체적으로 밝혀놓은 책.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과학자 노벨의 일생과 그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노벨상의 의의는 물론, 노벨상의 선정 기준과 시상과정 등이 소

개된 이 책에는, 아르키메데스·라파체·뉴턴을 비롯한 위대한 과학자의 창조적 정신과 그런 창의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물리학상·화학상·의학·생리학상으로 구분된 노벨과학상의 일람표가 부록.

검지사 / A5신 / 266면 / 4500원

이화에 월백하고

유두영 지음



20여년의 교편생활과 도서편집 경력을 지닌 저자가 첫 수필집 「세월, 그 한마디」와 「되돌아보기」에 이어 펴낸 세번째 수필집.

회갑때부터 뒤늦게

수필을 쓰기 시작했다는 저자는 "갈수록 수필이라는 것이 쓰기 어려운 글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면서, "독자의 질정을 받아 앞으로의 집필에 있어 도움이 되게 하고 싶다"고 서문에서 밝혔는데, 모두 3부로 구성된 이 책의 1·2부는 일반적인 수필로, 그리고 3부에는 기행수필로 이루어져 있다. 일상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저자의 진지한 삶의 자세가 돋보인다.

자유문고 / A5신 / 246면 / 3000원

새벽을 열며

이윤구 지음



89년 7월부터 KBS라디오의 '짧은 명상'이란 칼럼을 통해 방송된 105회분의 방송원고를 묶은 방송에세이집.

유엔아동영양특별

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저자는 인도소대륙과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기분이 들도록 한 방송스타일을 그대로 살려, 1부에는 인류문화의 본원지인 인도에 대해서, 2부에서는 레바논·이스라엘·팔레스타인 등 서부아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3부에서는 아프리카의 실상을 생동감 있게 전해준다. 또한 국제정치의 요람인 유엔의 속사정도 소개하고 우리의 현실에 대한 따끔한 칼럼도 실고 있다. 권말에는 청소년 단체에서 행한 저자의 연설문 '20세기 말의 지구촌과 한국청소년'을 덧붙였다.

웅진 / A5신 / 178면 / 3000원

두뇌창조

타고 아키라 지음 / 김재은 옮김



치바대학 심리학교수인 저자가 두뇌회전속도를 높이기 위해 쓴 'IQ 150' 시리즈의 첫 번째권.

대뇌의 30% 밖에는

활용을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려두는 나머지 두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잠재력 개발과 창조성 육성에 힘써야 하는데, 이 책은 일상생활에서도 혼자서 할 수 있는 두뇌개발을 돕는다. 두뇌개발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문제와 풀이를 함께 실고 있어, 지루하지않게 엮었다. 원제는 「두뇌체험」.

신원문화사 / A5신 / 206면 / 2500원

재미있는 수학여행(1.수의 세계)

김용운·김용국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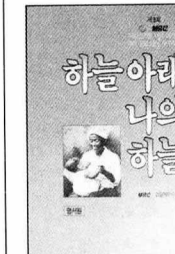
한양대 대학원장인 김용운교수와 목포대 교수인 김용국, 교수형제가 수학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다 재미있고 쉽게 보여주고 있는 시리즈의 첫번째권.

수학의 본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란 무엇인가' '기수법' '정수법' '배수와 약수의 성질' '페르마의 정리' '정수의 비밀' '음수의 참뜻' '분수와 소수' '무리수가 나온 까닭은'으로 구성된 이 책은, 암기식의 수학교육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게 두뇌의 단계적 훈련을 통해 수학의 본질과 아름다움의 세계로 접근하도록 꾸며진 점이 특징.

김영사 / A5신 / 264면 / 3500원

하늘아래 나의 하늘

MBC교양제작국 엮음



우리시대의 진정한 어머니상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효의 참뜻을 되새겨본다는 취지에서 MBC가 주최하는 '자랑스러운 나의 어머니' 수기 공모전에 입상한 우수작품들을 한데 묶었다.

신체가 부자유스러워 젊은 시절 자포자기하는 자녀에게 용기를 주시는 어머니,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굳센 의지로 살림을 꾸리면서 자식들에게 무언의 교훈을 남겨주시는 어머니 등 장하고 훌륭한 어머니들의 당당함을 엿보게 해주는 50편의 감동적인 글들이 수록돼 있다. "비록 우수한 문학작품은 아닐지라도 삶의 용기와 투쟁사를 보여주는 감동의 작품"이라는 것이 김남조·전상국씨의 심사평.

명서원 / A5신 / 326면 / 3800원

한잔의 차를 돌이켜

한국여류문학인회 편



한무숙·김남조·박완서·강계순·신달자씨 등 우리 문단의 대표적 여류 116인의 대표적인 에세이를 3부로 나누어 묶은 수필집.

순백의 순수함에 대해 아기의 배내웃, 결혼의상, 수의, 유령의 흰옷 등을 빗대 백의를 즐겨 입었던 조상들의 뜻과 어떤 색에도 쉽게 물들지만 본래의 색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매정스러울만치 깔끔한 백색의 의미를 되새긴 원로문인 한무숙씨의 '백색의 철학'을 비롯해 다양한 소재로 씌어진 여류문인들의 섬세한 감성과 예리한 통찰이 결집된 수필을 통해 삶의 참맛을 톺는다.

동화출판공사 / A5신 / 358면 / 4000원

나비

헤르만 헤세 지음 / 홍경호 옮김



「데미안」 「유리알 유희」 등의 대표작으로 유명한 저자의 나비와 관계된 여러가지 체험과 추억, 관찰, 시가운데서 가장 매혹적인 글들을 모은 책.

맨 먼저 실린 '나비에 대하여'는 1936년 출판된 아돌프 포트만의 사진첩 '나비의 미'를 위해 써준 서문이며, 뒤의 산문들은 40세까지 온갖 종류의 나비를 수집한 헤세의 나비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

범우사 / A5 / 156면 / 4000원